

〈2021 지역문화예술 공모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총평

□ 심의위원회 구성

구분	이름	직함	소속
예술창작	김진희	팀장	파라다이스문화재단 문화사업팀
	도재형	팀장	서울문화재단 기획제작팀
	김옥경	팀장	국립극단 공연기획팀
지역문화예술프로젝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김수미	팀장	중랑문화재단 문화정책사업팀
	송수민	대표	크리에이티브 큐랩
	안태호	편집장	예술경영웹진
	윤금노	팀장	노원문화재단 문화진흥팀

□ 심의총평 (심의위원 순위 무작위)

[예술창작]

- 새로운 주제의식과 형식을 고민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꾸려 안정적인 기획안을 실행할 수 있는 단체와 개인에게 조금 더 높은 평가를 함. 본 공모사업을 통해 창작된 예술작품들이 지속적으로 넓은 활동을 펼쳐 나가길 기대함.
- 창작자들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술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장애예술에 대한 관심을 읽을 수 있었음. 작품의 주제의식과 명확한 목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작품을 우선적으로 선발함.
- 많은 창작자들이 다양한 소재와 표현방식을 통해 작품을 구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 인상적이었으며, 실직적인 작업을 통한 완성도가 궁금해지는 계획안들이 많았음. 소재와 대상의 참신함, 사업 추진 시 계획과 주어진 예산운영을 통한 실현가능성, 발전지속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정한 현실임을 고려하여 위기사 대응 방안을 사전에 고민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 함께 고려함.

[지역문화예술프로젝트]

- 선정분야의 다양성을 고려하였으며, 새로운 문화나 장르를 개발하고 강북구 주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거나 코로나19의 상황을 감안하면서도 되도록 함께 하려는 노력에 좀 더 높은 가점을 두었음.
-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 강북이 가진 자원을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 접목하고 구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는

프로젝트들이 눈에 띄었음.

- 지역과의 연결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기획의 과정을 어떻게 짜놓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평가하였음. 기획의 의도와 실행까지의 과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다원예술 프로젝트들이 두각을 나타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한 이중적인(온/오프라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과 사업의 기대효과나 예상 반응 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으며, 계획의 충실성과 사업 이후의 지속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했음. 단순한 기술 교육을 제시한 내용은 아쉬웠음.
- 다수의 지원자가 단순한 기능교육에 그치는 경향이 있어 아쉬웠음. 하지만 일부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한 가치인 사람 간의 소통과 자기표현에 방점을 두고 기획한 프로그램들이 있어 고무적이었음.
- 전반적으로 기능수업에 치우친 프로그램들이 많아 아쉬웠음. 전체 과정을 염두에 둔 감수성과 감각 교육이 아니면 문화예술교육의 범주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지역의 관련 주체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